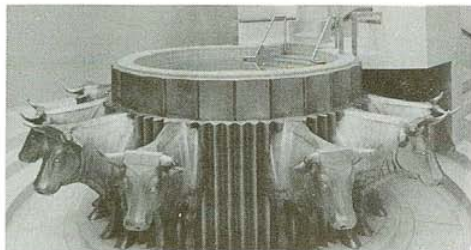




표지: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회장 드웬 제이 영(중앙), 제1보좌 버지니아 비 캐넌(좌),
제2보좌 마이클린 패커 그래스리(우)

성도의빛 11
1982



2



9



43

성도의 벗 11

1982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앤 엘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힐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트라 테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로스 알 맥콩키
앨 톰 페리
데이비드 비 웨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널 에이 맥스웰

교문

엠 러셀 발라드 이세
로렌 시던
렉스 디 피베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에프 엘리오 부쉬

차 례

신전과 신전 사업.....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1
질의 응답		5
추운 겨울 밤의 따사로운 침례	힐데가르트 할.....	9
오늘날의 초등학교.....	편집자.....	12
신권 축복을 베품	데니스 엘 라이스고.....	14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셀레스티아 화이테드.....	20
정정 당당하게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23
마지막 전근 발령	폴 제임즈 토스카노.....	29
거기 말고는 어디든지	마리오 지 에세베리.....	33
오늘	데릭 에이 커스버트 장로.....	35
해롤드 비리		39
말미잘 주변의 어릿광대.....	셔우드 비 잇소.....	40
친구가 친구에게		43
해외 소식		46
지역 소식		50

성도의 벗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회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외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권 : 제208호, 제18권 제11호
등 목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2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틸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과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진 수

© 1982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 소주

신전과 신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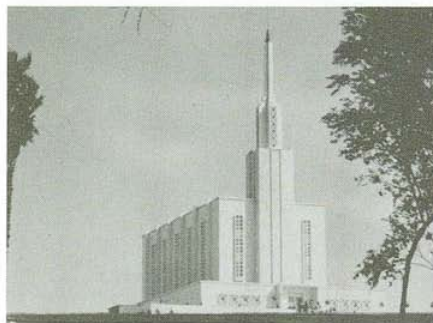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보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전은 전세계의 수백만의 말일성도들이 영혼의 불멸성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집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의식은 지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은 사실상 불멸의 존재라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며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강한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있

니다.

신전을 건립하고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와 그 속에서 행해지는 헤아릴 수 없는 봉사의 시간도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영혼의 불사불멸을 믿었습니다. 구세주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였던 모든 기독교인들도 그것을 믿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비기독교도들도 생은 영원



뉴질랜드 신전(상)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 : 22)

맨타이 신전(우)



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죽음이란 인류에게 대단히 신비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지구의 역사상 모든 시대의 남자와 여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욕이 말한 다음의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욥기 14 : 14) 이 문제는 구세주와 그의 예언자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제기되었으며 영생에 관한 그들의 선언은 대낮과 같이 명백했습니다.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하신 구세주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지주가 되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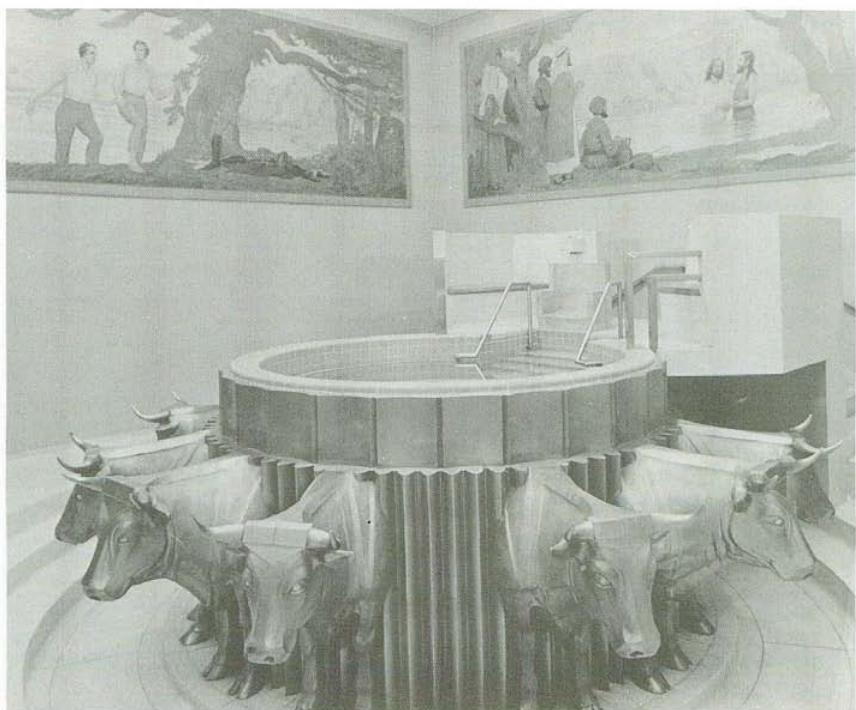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 : 25-26)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하신 다음 말씀도 수세기를 통해 거룩한 구속에 관해 증거해 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 : 22)

참으로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다호 폴스 신전의 침례탕(아이다호 주).



“자기 목숨을 아끼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요셉 스미스여, 마태복음 10 : 39)

그러나 부활 이상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왕국에서 승영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그리고 그의 아들을 우리의 살아 계신 구속주로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중요하고 필수적인 여러 가지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의식 가운데 첫째되는 것은 침수로서의 침례입니다. 구세주의 말씀에 따르면 이 의식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신의 은사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후 계속해서, 남자라면 신권에 성임되며, 신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남자나 여자에게는 신전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신전 축복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씻음과 기름부음 의식이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또한 우리가 복음 원리에 따라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의무와 축복의 엔다우먼트가 주어지는, 가르침을 위한 의식도 포함되며, 영속적인 가족을 위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는 인봉 의식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여러 의식은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 신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훌륭한 경험이 됩니다. 이러한 의식의 특성은 영원한 것이므로 모든 종교의 의식 가

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신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영원한 의식이 행해질 수 있는 특별한 집을 지으라고 요구하신 분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축복이 지상에 보내진 수역의 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 신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소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다면 이 모든 것은 제한적이며 독점적인 것이라 아 니할 수 없습니다. 아들과 딸들에 대한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지상에 살았던 자나 지금 살고 있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모두 이러한 신전 의식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은 주님의 집에 들어가 위대한 대리 의식을 행하는 자들의 의무와 축복이 되었습니다. 살아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듣거나 받아들일 기회를 얻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대신해서 지상에서 대리 의식을 행하는 축복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리 의식을 집행받는 죽은 자들에게는 이를 받아들일도록 어떠한 강제 조치도 취해지지 않으나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신 분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떠난 자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행되는 이 사업은 놀라운고도 독특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값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제공되어야 할 위대한 사랑의 사업입니다.

주님의 신전에서 죽은 자를 위해 대리 사업을 행하는 수백만의 말일성도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전능하신 주께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들에게 이 비이거적인 봉사를 행할 신앙을 주신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전능하신 분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훌륭한 봉사를 행하는 자들은 칭찬을 기대하거나 또한 그것을 받지도 않습니다.

저 세상에 계신 분들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신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그리고 성신의 권세로써 주어지는 지식과 확신으로 일을 행할 때, 그들은 매일 그리고 매년 하나의 평범한 성도로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유형의 일에는 약간의 보수가 그 일에 대한 보상이 따릅니다. 장차 언젠가는 이곳 신전에서 봉사한 남자나 여자가 다른 세계에서 그들이 한 일로 인하여 혜택을 입은 자들로부터 감사를 받게 될지도 모르지만 결코 그러한 기대가 주님의 집에서 충실하고 경건한 남녀가 봉사한 시간에 대한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정신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다른 봉사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신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동기는 완전히 헌신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전 사업을 수행하는 자세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어떠한 것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거기에는 이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따릅니다. 구세주께서는 사랑과 헌신을 갖고 그의 사업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요셉스미스역, 마태복음 10 : 39)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신전 사업에 대한 축복에 관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게 하고 가족에게 이와 유사한 경험이나 느낌을 서로 나누게 한다.

2. 이 기사에 가족이 큰소리로 읽고 토론할 만한 성구 또는 다른 인용문이 있는가?

3. 주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의식이 어떤 면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의 승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는가?

4. “신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동기는 어째서 완전히 헌신적인” 것이 되는가?

5. 이 토론은 방문 전에 가장과 함께 이야기하면 더 훌륭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로버트 제이 매튜
브리감 영 대학교, 고대 경전과 과장

사람들 가운데는
부와 재능면에 있어서
너무나 크게
불공평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상해 주실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환경에 큰 차이가 있는데 외견상으로는 흔히 우연한 현상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은 지적인 재능이니, 유쾌한 성품, 재산, 교육 혹은 육체적인 매력을 지닌 자로 타고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극도로 빈곤한 가운데, 육체적으로 허약한 상태로, 저능아로 그리고 “장애자”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개개인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각자의 출생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혹은 특정한 사람이 다른 이보다 더욱 유리한 혜택을 받게 되는 사유를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차이의 이유에 관해서는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련되는 기본적인 영원한 원리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서 “값진 진주, 곧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지극히 다행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빌립보서 3:8)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표준에서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복음의 축복을 지니고 있느냐 아니냐에 비교한다면 너무나 하찮

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둘째, 복음은 우리들에게 지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들 모두는 문자 그대로 하늘의 부모의 뛰어난 영의 자녀이며, 우리 모두는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생각하고 배우고 행동하고 반응을 보이는 독특한 개체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전세에서의 삶은 우리의 개인적인 성품과 다소 관계가 있음에 틀림이 없으며 어느 정도 이것은 주어진 종교적인 기회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엘마서 13:2-11; 아브라함서 3:22-23 참조)

셋째,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러한 시대와 상황에서 이 세상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24-27; 신명기 32:7-8 참조) 지상에서의 그분의 목적에 관해 니파이는 자기의 느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행치 아니 하시나니, 이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심이요.” (니파이이서 26:24)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인간에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교성 29:30) 우리는 그의 심판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공의와 자비 가운데서 행해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어야 할 중요한 진리는 요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기도했을 때 주

님으로부터 받은 응답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 (교성 122:7) 영원의 한 시점에서 살펴볼 때, 우리의 지상 생활은 근본 목적인 육신을 얻는 것과 영혼의 식견을 넓히는 일과 하나님의 면전에서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이 지상 생활을 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례가 지켜지는 전세와 내세에 비견하여 살필 수 있다는 사실 이외의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할 네번째 기본 원리는 우리는 우리보다 안이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부러워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 곧 세상적인 부와 명성과 영향력과 안일한 생활은 실제로 심각한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러한 것들을 잘못 다스린다면 그러한 것들은 영적인 타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빈곤과 시련과 생의 고통은 겪는 자들이 경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것은 겪은 자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앙과 신뢰의 문제이며 그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에 따라 생활하고 생의 문제에 관해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일을 삼가한다면 겸손과 영적인 성숙과

인내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1809—1865,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그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믿을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해주었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섯째, 복음은 우리에게 지상에서의 삶은 시련 곧 시험의 기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은 시험의 기간에서는 고통이란 으레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들이 겸손해지도록(이더 12:27 참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로마서 8:28 참조)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겪는 상황은 단지 시험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불행이나 즐거움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것이므로 모든 인간의 상태는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모든 고통은 죄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원인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교회 회원들 가운데도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나?” 그러나 구세주께서는 고통은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3:1—5; 요한복음 9:2—3, 34 참조) 그리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는 사람이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의롭지 못한 자라고 추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원칙”(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59 페이지) 이라고 했습니다.

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친구나 재산을 잃게 하는 그러한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경험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애굽의 요셉도 또한 커다란 장애를 극복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섬으로써 보다 훌륭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면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에는 정화시키는 힘이 있어서 그와 같은 정화 또는 경험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문제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 됩니다. 그와 같은 영적 성숙에 대한 보상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유익할 것입니다.

끝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그의 시대에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에 관해

이 생에서의
문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죽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신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말라기 3: 14-18)

말라기는 이 생의 분명한 불공평은 결국 하나님께서 분별하실 것임을 명백히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이란 우리의 환경(부유한가, 가난한가, 인기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기보다는 이러한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행하는가 하는 것은 환경 그 자체보다 월등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게 된 결과로서 우리는 육신을 얻게 되었고 어려움을 당하고 따라서 경험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발전하도록 해 줍니다. 바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생에서의 문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죽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 16-18) 그와 같은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영적으로 성숙되는 것은 충분한 보상이 따르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

추운 겨울 밤의 따사로운 침례

힐데가르트 할



나의 부모님은 1차 대전 중에 독일에서 선교사의 입국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 들으신 것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나의 사촌으로부터였으며 그녀는 교회에 입교하였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의절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내 동생과 나를 데리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했으나 자신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 직원이 그에게 물문경을 전해 주고 교회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책을 읽으셨고 복음을 공부하셨으며, 우리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부장이 어머니에게 침례받으라고 권고했을 때 어머니는 자신과 자녀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나 남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나도 역시 준비되었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아빠가 아직 담배를 피우고 있으므로 준비가 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자신이 갖고 있던 파이프를 세 동강으로 부러뜨려 불 속에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보석 세공이며 시계 수리공인 부친은 늘 높은 탁자에 앉아 마루 바닥까지 닿는 긴 파이프를 물고 일하셨으므로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침례는 불법이었으므로 우리는 밤에 전차 정류소에서 몇몇 성도들을 만나 침례를 받으러 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날에 나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으나 너무 몸이 아파서 저녁밥을 들 수 없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더 악화되었으므로 어머

니는 나에게 다음에 침례받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침례받기로 작정했으므로 더 기다릴 수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우리는 한 시간쯤 전차를 타고 캠프트츠에 도착하여 거기서 공원을 지나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전차에서 내렸을 때까지도 나

아버지는
자신이 갖고 있던
파이프를
세 동강으로
부러뜨려
불 속에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는 몸이 아주 불편해서 말을 하거나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몇몇 형제들이 번갈아 가며 나를 안고 갔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경비하고 있는 경찰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무에 기대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으로 가는 길에는 철조망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몇몇 형제들

이 철조망을 벌려서 우리가 간신히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강은 푹푹 얼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얼음을 깨뜨렸으며 나에게 그때도 그날 밤에 침례를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때는 자정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으므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는 11명(3명의 어린이와 8명의 성인) 가운데 맨 먼저 물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에 잠겼을 때 마치 두꺼운 껍질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던 것은 분명히 찬물의 충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 제방으로 기어올라 올 수 있었으며 아팠던 몸이 거뜰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자매들이 나의 몸을 닦아 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후에 확인 안수를 받기 위해 조그마한 접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난 후 우리는 조금 전에 왔던 그 길을 따라 철조망을 통과해 그때까지 잠이 들어 있는 경찰 옆을 지나왔습니다. 크고 밝은 보름달이 대낮처럼 길을 밝혀 주었습니다. 전차 정류소까지 가는 동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찬양드리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대전이 끝난 어느 날 선교사들이 독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미국에서 온 독일어를 하지 못하는 새로운 선교사가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우리 집에 왔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전에 영국 리버풀에 4년간 살았던 적이 있었으므로 영어를 약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우리 모두는 성찬식에 참석했으며 새로 부임한 장로에게 말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 장로가 독일어를 할 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안쓰러운 마음을 가졌

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는 거기 잠시 동안 있었던 다른 장로들로부터 말쑤를 적을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시간 이상 말씀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막 겪었던 대전보다 더 무서운 또 다른 대전이 일어날 것이므로 미국으로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최근의 전쟁의 참화가 우리의 기억 속에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기만 해도 비참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부모님께 선교사가 사용한 말이 어느 나라 말인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독일어도 아니었고 내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영어도 아니었지만 그가 말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부친은 내가 아마 다시는 그와 같은 것을 들어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로는 방언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나의 부모는 미국으로 이민하는 계획 외에는 별로 말씀이 없었습니다. 나의 부친은 먼저 미국으로 건너가셨으며 일년 후에 어머니와 동생과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처음에 심장병 때문에 출국을 정지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 동생과 나는 가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6개월 후에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예언했던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독일에 살고 있는 나의 누이는 장로님이 예언했던 그대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에 관해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

오늘날의 초등협회



본부 초등협회 회장단, 회장 드웬 제이 영, 제1보좌 버지니아 비 캐넌, 제2보좌 마이클린 패커 그래스리 자매와의 대담

편집자 : 여러분들은 이제 본부 초등협회 회장단으로서 2년 6개월 이상 봉사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초등협회에 관해서 배우신 바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 자매 : 나는 전세계의 어린이는 다른 점보다 동일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필요와 욕망과 배우려는 열의는 동일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능력과 잠재력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캐넌 자매 : 우리가 만난 지도자들도 역시 이와 같은 열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으며 훈련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열심히 그리고 기꺼이 어린이들을 돕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스리 자매 : 저는 또한 전보다 커

진 외부 세력에 넘어가기 쉬운 어린이에 대한 지도자들의 관심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초등협회는 헌신적인 지도자와 교사들에 관한 많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편집자 : 영 자매님, 자매님은 초등협회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 자매 : 초등협회의 목적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종교 교육과 활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편집자 :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봅니까?

영 자매 : 첫부분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활동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초등협회 지도자와 교사

들을 더욱 격려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린이들이 공과 시간에 그들이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익히는 것은 바로 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일요일에 초등협회의 일부로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어린이들은 초등협회 나머지 시간까지 반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함께 나누는 시간의 절반은 어린이들이 그들이 배운 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반 발표 시간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스리 자매 : 어린이들은 일년에 네 번 갖기로 되어 있는 활동의 날에 참여함으로써 복음의 여러 가지 분야를 적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활동에는 지혜의 말씀의 가치를 강조하는 신체 단련 전시회로부터 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 부모는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초등협회에서 경험을 갖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영 자매 : 가족이 일요일 모임을 마치고 돌아올 때, 부모는 각 자녀에게 개인적으로 “오늘 초등협회에서 무엇에 대해 배웠니?”라고 질문합니다. 만일 우리집 애가 명백히 어떤 개념도 배우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나는 그 애가 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사나 초등협회 회장에 이야기합니다. 부모로서 나는 특정한 공과가 가르쳐지고 그 아이가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캐년 자매 : 우리가 어린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의 하나는 그들이 초등협회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서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

은 그들이 교회에서 배운 바를 가정에서 보완해 줄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편집자 : 교회의 주일날 모임 계획은 거의 3년 단위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초등협회 교사들이 상호부조회나 주일학교나 신권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스리 자매 : 그들이 초등협회에서 봉사할 때 그들은 봉사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캐년 자매 : 초등협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봉사이므로 만일 교사가 자신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들이 공과 시간에 빠지더라도 별로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 자매 : 초등협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자매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주중에 갖는 가사 모임에 참석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이 방문 교사가 되고 자선 봉사에 참여하며 여러분의 신전에서 지명을 잘 행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일날의 여러분의 책임은 초등협회이며 여러분이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년간,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은 아론 신권 소유자를 가르치기 위해 정원회 모임에 참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청소년에게 봉사하며 그들의 영적 발전을 지도하는 그 시간과 기회를 중요시 않을 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협회는 거기서 봉사하는 자매들과 신권 소유자에게 하나의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

신권 축복을 베품

데니스 엘 라이스고



멜 기세택 신권 소유자는 병자를 축복하는 신권 의식에 참여할 특권과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나 권능과 더불어 신앙과 영감을 통하여 행동해야 할 커다란 의무가 따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 : 14-15)

신앙, 영감, 권능 이 세 가지는 신권 축복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나는 20세기의 한 사도이신 매튜 카울리 장로가 뉴질랜드에서 한 마오리족의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한 어린이를 축복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막 축복을 하려고 할 때 그 아기의 아버지는 “장로님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줄 때 그 아이의 시력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는 날 때부터 장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카울리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의구심이 일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폴리네시아인은 아이에 대한 단순한 신앙을 갖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신앙은 심리학이나 인간의 어떤 학식에 의해 혼탁해진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약속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고 결국 나는 용기를 얻어 그 아이에게 시력을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그 아기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여섯 살 내지 일곱 살

이 되었으며 사방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도 볼 수 있습니다.”

내 생애에서 보다 놀라운 경험은 내가 뉴질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행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한 인상적인 마오리 노파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몹시 앓고 있었고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과도한 체중과 노령으로 인하여 그 노파의 회복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노파는 나에게 축복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장로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나는 나올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 병자 축복을 하기 전에 그녀 곁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후 나를 통하여 그녀에게 축복이 전달되었고 그 축복의 내용이 너무도 긍정적인 사실에 나와 나의 동반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회복에 대한 나 자신의 소망 때문에 혹시 좀 지나치게 감정적인 축복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염려와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더니 “감사합니다. 다음 일요일 교회에서 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도 완벽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다음 일요일에 간증회에 참석했습니다. 비록 신체적으로는 연약했지만 그 노파는 일어나서 위험한 순간에 그녀를 도와 주신 데 대해 주님께 큰소리로 감사했습니다. 이번의 경우 그 노파의 신앙이 축복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가 흔히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권의 의무를 행하는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영감을 받는 것은 거의 의무적인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선교사는 축복을 하면서 훌륭한 경험을 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나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게 되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의 어느 지부 예배당에서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붕을 고치고 있던 지부장이 발을 헛디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선교사는 즉시 그의 곁으로 달

려가서 간절히 축복을 하면서 그에게 생명과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에 지부장은 죽었습니다.

크게 실망한 나머지 그 선교사는 아파트로 돌아가서 세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한 통은 선교부장에게, 또 한 통은 감독에게, 또 한 통은 교회 대관장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신권에 대한 자신의 환멸과 선교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을 걱정과 감동과 간헐적인 기도로써 지새운 후에, 점차 그는 주님의 뜻이 이룩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고 병자 축복을 행하기 전에 주님의 영감과 인도를 열심히 구했어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와 같은 성급한 방법으로 축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의 아내 마티는 임신 초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말로만 하는 간절한 축복을 하고 아내에게 건강이 지켜질 것과 태아가 무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나는 잘못 축복했으며 태아는 실제로 죽었음을 알았습니다.

금식과 기도를 하고 나는 동료 신권 소유자에게 내가 아내에게 재차 축복을 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나는 조심스럽게 주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그 아기가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할 수 없었으나 마티는 다른 건강한 자녀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태아는 살아나지 못했으나 그 축복의 성취로 4명의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축복에서 나는 말하고 싶은 바를 말하지는 못했지만 마티와 나는 성신의 위

로로부터 주어지는 화평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과 병자를 위한 축복을 행하는 것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자가 의식을 받고 충분한 신앙이 있고 그가 ‘죽기로 정해지지 아니한 자’ 라면 병고침을 받을 것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교성 42 : 44—48 참조) 그러나 거기에는 충족되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좇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또는 충분한 신앙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요소, 즉 죽기로 정해지지 아니한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또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신권의 권세는 제한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현명하게 우리 각자에게 어떤 제한을 두셨습니다. 내가 내생을 완전하게 할 때 신권의 권세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권으로써도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없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죽어야 할 자를 고칠 수 있으며 고통을 당해야 하는 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도 있을 것이나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지 않나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권 축복을 베풀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믿는 신앙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감을 받고 그분의 뜻을 알겠다는 결손한 소망을 갖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몇몇 신권 소유자는 영적인 일에 대한 경험 부족과 영감을 깨닫

지 못해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을 말할 것을 두려워하여 축복을 베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권 축복을 베풀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과 그분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은 둘 다 필요하겠으니 하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자가 의식을 받고
충분한 신앙이 있고
그가 ‘죽기로
정해지지 아니한 자’ 라면
병고침을
받을 것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교성 42 : 44—48 참조)

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교통함에 있어 이 두 가지가 주요 요소가 되며 신권 집행과 축복, 신앙과 영감의 교류에 있어서도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그러한 일에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것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고 있고 또 합당하다면 우리는

그 신권을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축복을 주기 전에 겸손한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엄격하게 말하자면 병자를 위한 축복, 곧 신권 의식은 어떤 중대한 면에 있어서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 곧 신권의 권능에 의해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인도되었을 때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의 권세를 사용해서 행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기도는 주님과 교통하는 강력한 방법이며 많은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주님께서도 우리가 신권의 권세를 통해 병자를 축복하도록 허락하셨으며 신권의 권세의 사용에 관한 합당한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그와 같은 사용은 주님을 참여시키기 위한 신권 축복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같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복음 18 : 20)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병자를 축복할 많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정원회 회장의 부름에 응하여 병자를 축복하기 위해 병원에서 저녁을 보낼 수도 있으며 병에 걸린 와드 회원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권을 사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우리 자신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때때로 육신의 병이나 출산이나 낙망, 또는 의기 소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영감의 축복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에 축복을 베풀어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 : 20)

하지만 그 외에도 자녀들이 사회 적응이나 동년배의 압력이나 학업 성취부진, 교사와의 불화 그 외에 많은 다른 문제로 고민할 경우에도 축복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위해 영감을 받음으로써 자녀들의 일생을 통해서 지속되며 강하고 단합된 가족을 유지하는 데 힘이 되는 신뢰와 신임의 느낌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의 진실된 영적 관심을 기억하는 어린이는 보다 위급한 일을 당면했을 때 칩사리 그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또한 그들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일 곧 선교 사업, 군복무, 대학, 결혼 등에 앞서 아버지의 축복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감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위안과 권고를 위한 축복에는 기름은 사용하지 않음)

축복에 관해서, 나는 자녀들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병자 축복을 한 경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우리의 장남 다린이 어느 날 밤 심한 귀앓이로 고생하고 있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는 너무 아팠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름 축복을 하자마자 곧 아픔이 가라앉고 잠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가 그를 소아과 의사에게 데리고 갔을 때 의사는 다린의 고막이 그날밤에 파열되었고 그것이 심한 진통을 완화시켜 잠이 들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고막이 파열되었을 정확한 때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청각을 잃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의사는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귀 전문 의사에게 가 보라고 권고했습니다.

수주 후에 우리가 그를 전문 의사에게 데리고 갔을 때 전문의가 다린의 귀에서 아무런 질병의 증상도 찾아 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고막은 완전하며 아무런 파열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의 권세와 신권 축복의 효능을 가르쳐 준 놀라고도 진지한 경험이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임이 “주의 면전에서……두터워”(교성 121:45)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영감받은 신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 권능을 사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론해 봅시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 전체가 “신권 축복을 베풀”을 읽고 나서 복음 공부 시간에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1. 신권 축복에서 기도는 무슨 역할을 하나? 신앙은 무슨 역할을 하나?
2. 신권 축복을 베풀기 전에 “열심히 주님의 영감과 인도를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3. 건강의 회복을 위해 신권 축복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았던 자를 알고 있는가? 이 기사에서 인용된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의 말씀은 그와 같은 경우에 어떤 해답을 주고 있나?

4. 여러분은 위로와 권고의 축복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했다? 이와 같은 축복을 합당하게 해주었던 여러분의 가족에 있어서의 경험은? *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셀레스티아 화이테드

6세 미만의 자녀 여섯을 둔 젊은 어머니였을 때입니다. 나의 남편 뱀은 법과 대학 1학년 과정을 막 마쳤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의 가족이며 주님의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결혼 생활은 실제로 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었습니다. 나의 생활은 나의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한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생활이 너무 집안 일과 일상의 업무에 매여서 영적으로 몰두하지 못하는 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축복에 감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고통과 역경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진실로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리하이가 야콥에게 범사에 서로 상대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은(니파이서 2:11-15 참조) 내 생애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생애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은 상대되는 것 곧 고통과 역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역경으로부터 오는 가장 큰 교훈의 하나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하는 것을 배우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나는 천기증과 메스꺼움과 균형을 잃게 되는 증상과 그 외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돌보아

야 할 아기가 있었으며 남편은 학년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설상가상으로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내 귀 안을 살펴보다니 나를 신경과 전문의에게 보냈고 그는 즉시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 검사는 심히 고통스러웠고 심한 두통과 구토를 일으켰습니다. 여러 번 나는 고통을 덜어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고 간구했으며, 나는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빨리 오는 것에 놀라 결혼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종양을 찾고 있었으며 그 사실에 다소 놀라기는 했지만 남편과 나는 순진하게 이것은 수술만 하면 되는 단순한 것이며 내가 곧 낫게 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경과 의사가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와서 그들이 뇌종양을 발견해 냈다고 말했을 때 나의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그와 같은 종양은 수술할 수도 없으며 아주 악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우리의 낙관적인 생각은 갑자기 사라졌고 우리의 앞날은 암담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내가 죽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만은 없었습니다……그 혼자서 어떻게 살림을 꾸려

나갈 것이며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는 수주 후에, 어머니께서,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자신이 나를 대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큰 감동을 느낍니다. 얼마나 크신 어머니의 사랑입니까! 우리 와드 회원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나의 남편은 번민에 빠져 있었읍니다. 후회는 없었지만 우리는 함께 헤어 가자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이가 좋았습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없이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해와 평안한

심정으로 마음의 평화와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간구했습니다.

나도 또한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간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아무런 생각없이 성경을 펼쳤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한복음 21:15) 그 분이 나에게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했는가, 생명 그 자체보다도 더 사랑했는가?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결국 나는 “뜻이……이루어지이다”라고 말했을 때 나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 때 내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화평이 가득 찼으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울었던 것



은 어린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들을 맡기고 떠나기란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신전에서 우리는 인봉되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다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지상에서 보내는 시간의 참된 중요성을 명백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계획에서 볼 때, 이 지상에서 백년을 산다 해도 그것은 극히 짧습니다. 지상에 남아 있는 자들은 지상을 떠나는 자들에 대해 심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을 훌륭한 것들로 채울 것이며 계속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돌아가신 자들은 영의 세계에서 매우 분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과의 화해가 있는 후 나는 끊임없이 타는 듯한 영을 느꼈고 나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힘이 넘쳐 흐름을 느꼈습니다. 나는 또한 영의 세계에서 나를 기다리는 많은 자들이 있으며 내가 두려워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의붓아버지는 모두 그곳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는 삶을 더 잘 정돈해야 한다는 생각이 여러 번 떠올랐습니다. 어쨌든 내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나에게 마지막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공기를 척추액 속으로 주입시키는 심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종양의 상태를 더 잘 알게 해주며 의사에게 코발트 치료의 가능성 유무를 알려 줄 것입니

다. 검사를 하기 전에 나는 병원에서 퇴원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신권 축복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마쳤을 때, 의사는 가족에게 와서 종양이 없어졌다고 말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에 종양이 있었던 자리에는 아무런 흔적조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도 아무 설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득 나는 “생의 새로운 계약 기간”이 진실로 무엇일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관대하심과 지혜로써 이 지상에 왔습니다. 나의 “계약 기간”은 갱신되었습니다. 병원에서 17일간을 지난 후에 퇴원했습니다. 겨우 걸을 수 있었으나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충실하고 훌륭한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신권의 축복과 권세의 덕분이었습니다.

내가 차차 건강을 회복함에 따라 나의 생은 다시 한번 요리와 세탁과 청소와 기저귀 갈아 주는 일 따위의 세상의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사와 행복으로 더욱 충만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여야 할 필요성과 이해하고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다 뜻깊은 기도를 드려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해로 가득 찬 생활이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끊임없는 기도는 주님께서 나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합당하게 생활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우리가 얼마나 살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

정정 당당하게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것은 언제나 큰 기쁨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그 성품과 정직성과 높은 도덕 기준을 포함하여 수많은 것으로 전세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 기관으로서 오늘날의 표준이나 도덕 기준과는 좀 다른 것을 수호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 회원으로서 각자 자기 자신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강하거나 약한 것, 선이나 그다지 선하지 못한 것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교회 회원이 교회가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을 완전히, 철저히, 공공연하게 수호하고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편도 저편도 아닌 사람에게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움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움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움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요한계시록 3 : 15, 16)

나는 나의 스스로의 판단력으로는 안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되는데도, 이야기를 전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내 자신의 경험이 언급되는 것을 여러분이 용서하고 잘 경청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내가 여기에서 배운 교훈이 여러분에게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1942년 그 운명의 전쟁이 벌어지던

해에 나는 사병으로서 미합중국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어느 추운 날 밤에 나는 일리노이주 차누트 비행장에서 밤새워 보초를 서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나는 그 무섭도록 지겨운 밤을 지새우면서 근무지 주변을 걸어다니며 추위에 떨면서 졸지 않으려고 애쓰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확실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약혼 중에 있었으며 매월 50불씩 받는 사병의 봉급으로는 아내를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장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밤새 보초를 선 다음 하룻가 이를 만에 장교 학교에 입학 신청서를 냈습니다. 얼마 후 지정한 날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의 자질과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시험관 앞에 섰습니다. 나에게서는 내세울 만한 자격은 없었지만 2년 동안의 대학 수업과 남미에서 교회를 위하여 선교 사업을 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22세의 나이로 건강 상태가 좋았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조건 가운데 입학 지원서에 내가 교회의 선교사였다는 것을 기재할 수 있는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장교 시험관의 질문을 받고 나는 놀랐습니다. 사실상 모든 질문은 내가 선교 사업을 했던 것과 내 신앙에 관련된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담배피우니까?” “술마십니까?” “담배피우고 술마시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도합니까?” “장교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장교는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자주 기도하는 사람같이 보이지

“두 가지
도덕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떻게 믿는가에 대하여 대답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할까? 논쟁의 여지가 없는 대답을 하고 기도는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말할까?” 나는 밤새 보초를 서거나 식사 당번을 하지 않아도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애인과 결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장교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나는 애매한 대답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내가 늘 기도하며 정말로 위대한 장군 가운데 몇 분이 했던 것처럼 장교는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교는 적절한 시간에 자기 부하가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는 여기에 기도까지 포함시킬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시험관 중 하나가 좀더 재미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시에는 도덕 기준이 좀 완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기 집에서라면 행하지 않을 일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점수를 따고 참으로 대범한 태도를 보이기 위하여 애매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나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내가 그대로 살려고 애써 왔으며 배우고 또 가르친 그런 표준에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야말로 장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 순간 내 마음을 스친 생각은 이 도덕성에 관하여 나 자신의 믿음이 있지만 내 견해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배반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교사로서 순결의 법을 가르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내 마음을 스쳤습니다. 나는 경전에서 간음과 사통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대답을 미룰 수 없었으므로 “두 가지 도덕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간단히 말하여 두 가지 도덕 기준에 관한 그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리와 우리의 신앙으로 이 세상에 증거하는 그대로 생활하고 행동하려고 애쓰는가 하는 것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더 받은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의 믿음에 관한 이런 질문을 던진 이 거처론 장교들이 내 대답을 좋아하지

않으며 틀림없이 아주 낮은 점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시험장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점수가 게시되었을 때 놀랍게도 내 이름 옆에는 “95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장교 학교로 뽑혀 간 첫번째 그룹에 들어 있었으며 그 학교에 가기 위하여 상병으로 진급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소위가 되어 애인과 결혼하고 그후로 늘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순간은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의 하나였으며 당당히 서서 내 영혼을 살피고 여러분 모두와 같이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수많은 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믿는 것을 옹호하여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경험을 겪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그런 경험이 내 신앙을 강화시켜 주고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상황에 잘 적응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경험과 그 외의 여러 가지 경험으로부터 비롯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신앙에 찬성하지 않을지라도, 사실상 적개심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자신이 믿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엔 방관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슴과 마음으로 믿음을 언지만 사회적인, 가정적인,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두려움으로 인하여 굳건하게 진리를 수호하지 못합니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학문을 많이 닦은 것을 비난하여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사도행전 26 : 24)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 소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 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기록한 역사 기록에 있는 모든 내용 가운데 가장 슬픈 문구에 속합니다.]”(사도행전 26 : 26-28)

“거의”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우리의 선한 회원 가운데 일부는 거의 지혜의 말씀을 지키거나 신권회 및 성찬식에 가거나 가정의 밤을 가질 뻔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부는 거의 십일조를 낼 뻔했으나 내지 않았습니다.

구세주가 계시던 때로부터 믿기는 했으나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신자로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겁냈던 관원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요한복음 12 : 42-43)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

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린도전서 15 : 58)

몇 개월 전에 나는 아내와 함께 노팅엄 잉글랜드 스테이크의 리차드 리차드슨 감독의 부인인 케이 리차드슨 자매의 간증을 듣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리차드슨 자매의 허락을 받아 그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먼 옛날에 교실에서 종교적인 지식에 관한 공과 시간에 자기 간증에 대하여 소극적이 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14세 소녀였으며 선생님이 우리의 종교에 관하여 물으신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고 얼굴이 빨개졌으며 ‘아니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에는 너무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으나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당황한 가운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하고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확고한 간증이 될 수 있는 사실에 의심도 덧붙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똑같은 교실에서 대담하게 앞에 서서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하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그런 기회가 다시 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가를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경험을 통하여 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고린도전서 15 : 58)

웠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복음에 관한
 한 결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리차드슨 자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
 했습니다. “얼마 전에 노팅엄에 있는
 공공 도서관의 어떤 방에서 ‘물론 그
 실상과 환상’이라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바로 그
 쪽으로 가기로 했으며 저도 거기에 가
 기로 결심하고 세 아이와 함께 버스를
 타고 거기에 갔습니다.

“영화를 상영하기 30분 전에 누군가
 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원해서 거리
 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유인물
 을 나눠 주실 분 없습니까?’ 저는 ‘그
 래,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바로 이 일
 을 하려고 여기에 왔어.’라고 생각했습
 니다. 그러자 또 마음속으로 이런 생
 각도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지
 않지? 낯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두렵잖아?’ 저는 ‘사실은 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만히 서서 마
 음속으로 싸우다가 밀을 내려다보았습
 니다. 세 얼굴이 고개를 뻗히 쳐들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어린이였습니다. 저는 ‘단
 일 내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 주지 않는
 다면 내가 어떤 엄마가 될까?’라고 생
 각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 복음을 가르쳤으며 만일
 내가 가르친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가르친 것 가운데 많은 것을 망
 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바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유인물을 집어 들었습니다. 우
 리 자그마한 큰딸에게 양쪽으로 된 영화
 광고판을 씌우고 거리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권고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 영화
 를 보러 왔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하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저 가끔
 가정의 밤에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기뻐합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믿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축복받습니다. 그들은 자기 일
 을 관리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을 배웁
 니다. 그들은 자기 돈의 남은 잔고를
 좀더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
 의 신앙이 발전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놀랐던 사건 가운
 데 하나는 젊은 감독으로서 부름을 받
 고 처음으로 우리 와드의 십일조 명부
 를 보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 와드는
 내가 자라난 와드였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나의 교사였습니다. 모두
 나의 친구였습니다. 나는 그들로부터

배웠고 그들은 나의 영웅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으며 또한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금식일에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와 지상에서 펼치는 그의 거룩한 사업에 대한 강하고 지속적인 신앙을 재삼 확인하고자 십일조를 바칠 때가 되면 그 신앙이 흔들리는 수많은 사람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넘어집니다. 나는 복음의 두번째 기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두번째 기회라는 것은 베드로가 구세주를 모른다고 한 것처럼 한번 약해진 것을 안 다음에는 니파이삼서에서 이야기하는 소수의 레이먼처럼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 레이먼들은 그 믿음이 굳건하고 독실하며 확고 부동하여, 주의 계명을 충실히 지켰던지라 참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니파이삼서 6:14)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본연의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로부터 빛을 발합니다. 우리의 본심은 들여다보입니다. 속이려고 애쓰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실제로 아무것도 안 입었으면서도 자기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기만하는 임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굳건하고 당당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내부에 위대한 권세와 보이지 않는 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잠재되어 있는 영적인 근원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신성한 사업의 참됨에 관하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확신을 재확인함으로써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 교회를 인도하는 머리되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을 통하여 이 사업을 인도하고 관리하시며 또한 대관장님은 이 지상에서 왕국의 사업을 관리하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그의 사업과 영광은 그의 지시에 의하여 이 세상 수많은 땅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업의 신성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1979년 8월 25일, 캐나다 지역 대회에서 행한 말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정정 당당하게”를 읽고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 단위로 복음 공부 시간에 다음 질문에 관하여 토론할 수 있다.

1. 이 말씀은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경고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간증을 발전시키나?

2. 지혜의 말씀과 순결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시험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외에 세상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싶어하는 소망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는 가르침에 관하여 토론한다.

3. 우리는 성공하기 위하여, 행복해지기 위하여 대다수의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해야 하나?

4. 만일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피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나? 진리를 충실히 따르면 주님이 어떤 보상을 주실까? *

마지막 전근 발령

폴 제임즈 토스카노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마지막으로 전근 발령을 받은 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부장님은 선교사 지도자 가운데 변동 사항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며 나는 선교사로서 일하는 마지막 6개월 동안 관리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받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전근 발령이 왔을 때 나는 봉투를 열고 공문을 끄집어 냈습니다. 나는 새로운 임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재빨리 훑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찾고 있던 것을 찾지 못한 채 낙심했습니다.

나는 낭패감에 휩싸였으며 내 가슴에서 둔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나는 다시 그 편지를 이번에는 주의깊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같았습니다. 나는 북부 이태리의 티레니언 바닷가에 있는 제노아지에서 선임 동반자로서 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의 실망을 동반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으나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바깥에는 오후의 봄 햇살이 구름을 뚫고 비쳤으며 이태리의 플로렌스의 조약돌 깔린 거리와 보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녹슨 건물의 유리창에는 오색 찬란한 화분이 줄이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돼지 시장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발자국 소리는 좁은 새길을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이 시장은, 으리으리하게 장식한 수많은 입

구 가운데 하나를 지키고 있는 동상으로 된 커다란 돼지의 이름을 딴 옥의 시장이었습니다. 이 시장은 신선한 야채와 잘 익은 과일을 부드럽게 짜서 즙을 내는 여인들로 꽉찼습니다. 입구에는 치즈와 소시지 냄새가 신선한 대기를 짙게 채웠습니다. 실과 리본을 감은 실패로 줄무늬 장식한 매점이 줄이어 있었으며 거기에는 다양한 색상과 종류의 천이 걸려 있었는데 수수한 린넨 제품, 화려하고 살랑살랑 소리나는 다마스크췌, 따뜻한 모직 보, 리본으로 장식한 멋진 레이스, 두터운 가죽 냄새가 나는 잘 가공한 가죽 제품 등이었습니다. 탁자와 카운터에는 목제 성상, 장식용의 무늬 박힌 교직물, 그림, 대리석 상, 베니스에서 온 정교한 유리 그릇이 진열되어 있었으며 흥정하는 손님의 목소리와 물건 사이로 숨쉴 틈 없이 다니는 상인들의 소리로 온통 들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군중을 빠져 나와서 아르노강의 흙탕물 위에 걸쳐진 낡은 다리 근처까지 걸었습니다. 거기에서 동반자에게 나의 전근에 대하여……예상했던 지도자의 직책을 받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을 상했으며, 선임 동반자로서, 또한 지역의 관리 선교사로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며, 선교 본부의 역사 기록자로서 칭찬도 듣지 못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때로는 힘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어떻게 최선을 다했으며 지금 얼마나 실망하고 있으며 선교사로서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지구 관리 선교사로

부름받지 못하고 선임 동반자로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우리는 잠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동반자는 내가 듣고 싶어하지 않는, 내가 나 자신에게 가끔 이야기했던 말을 합니다. “어떤 직책에서 봉사하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봉사하는가가 문제이지요.”

그때 나는 거의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중심까지 들어가서 그 욕심을 뿌리뽑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나 자신에게서 그것을 뽑아 내도록 기도하려고 애썼으며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없는 척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욕심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자신을 우롱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나는 모든 올바른 것을 옳지 않은 이유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와 욕심으로 가득 찬 무가치한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은 거짓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고 싶지도 않았었습니다.

그 아아치로 된 다리 위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그때까지 드렸던 기도 가운

데 가장 절실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을까요? 왜 나는 그렇게까지 지도자가 되고 싶어했을까요? 나에게서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선교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어찌서 이런 욕망이 나를 감쌌을까요? 진실로 내가 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오, 주님,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에서 화평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캄캄하게 보이고 자기 자신으로 인한 쓰라린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어두운 곳을 비치는 빛처럼 환하게 일깨워 주는 자각심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떤 음성이 나 자신의 음성이 아니고 좀더 대범한 마음을 지닌 어떤 다른 분의 음성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납될 만하다는 표적이다. 교회의 부름이란 그런 표적이 아니다. 참된 표적은 성신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나는 이 세상의 구세주에 관한 것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는 듯이 그분의 이름이 온통 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나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무엇보다 알고 싶어한 것은 내가 과연 가치가 있으며 내가 구세주를 기쁘게 해드렸으며 그분의 사랑과 신뢰를 얻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교회 부름을 내가 가치가 있다는 표적으로, 내가 선교부장에게, 교회에게, 무엇보다 주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표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도자의 직책이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표적이 아니며 그가 받아들이시는 참된 표적은 성신 즉 성령의 권세, 열매, 은사라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플로렌스의 그 넓은 다리에서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나는 점점 더 높은 교회 직책을 계속해서 바라고 점점 더 실망하고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원하지 않는 것은 결코 충분히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모조품이 결코 진품과 같은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경우, 교회 부름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승인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으로 전근 발령을 받은 그 때부터 수년 동안 나는 어떤 부름도, 어떤 세상적인 소유물도, 어떤 학위도, 어떤 부나 특권도, 어떤 운동의 기록도 그 외의 어떤 세상적인 것도 그리스도나 우리가 그분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식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 지식이 가장 큰 보혜

사인 것입니다.

그 넓은 돌다리에서 나는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과 꿈, 심지어는 생명과 사랑하는 사람까지, 우리의 시간, 재능, 부, 마음, 힘, 권세까지 빼앗아 가실 수 있으며 그것은 주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거나 필요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이 그분보다 더 중요해지는 일이 없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며 그런 것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 대신에 숭배할 말못하는 우상이나 거짓 신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오관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권세인 성신의 권세에 의하여 나 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으며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때에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고전 15:52), 그를 사랑하며 그가 오실 것을 기다리던 사람은 그의 영광의 구름 속에서 그를 뵈고 공중에서 당당한 그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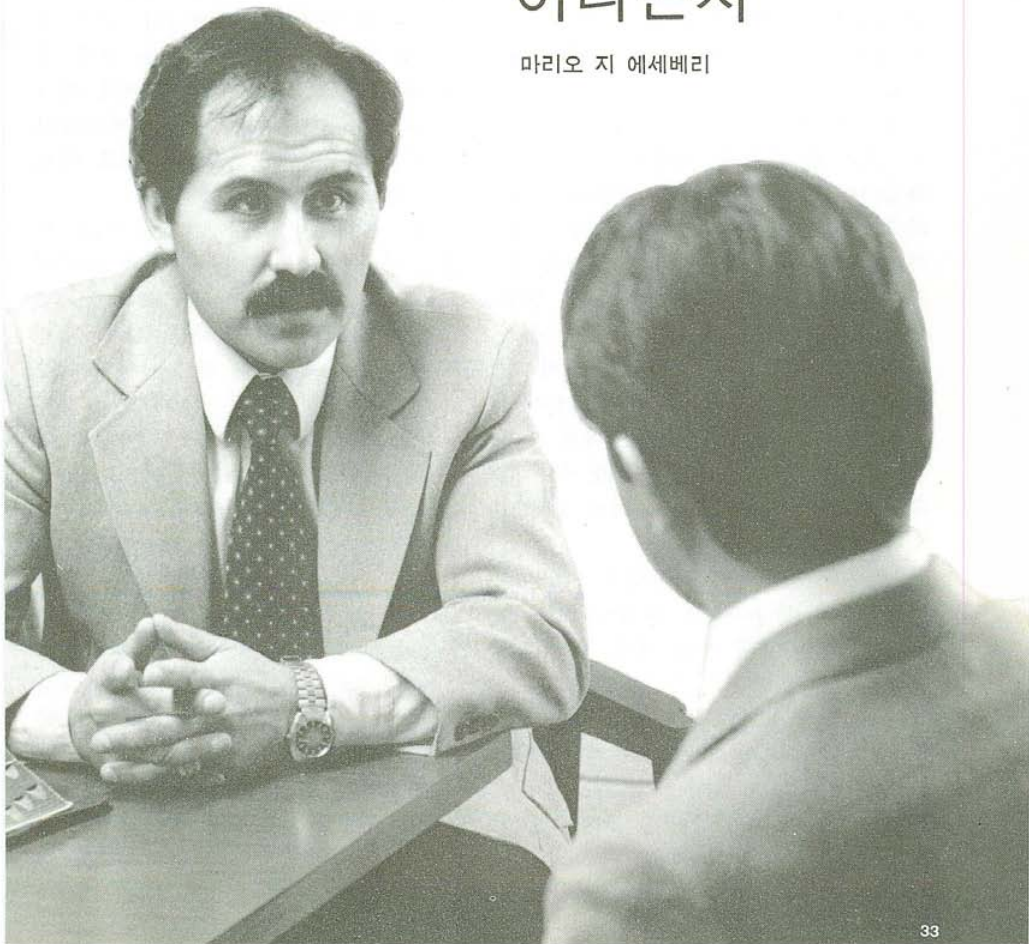
사진 제공 : 마이클 엠 맥콩키 촬영

나는 콜롬비아 동부에 있는 작은 도시 출신입니다. 내가 교회에 관하여 배우고 침례받은 곳도 그곳이며 선교 사업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된 곳도 그곳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나뿐이었습니다. 나는 거의 매일 밤 선교사들의 일을 돕고 그 분야에 경험을 얻기 위하여 선교사들과 함께 나가던 일이 기

억납니다. 선교사들이 나에게 어느 곳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베네주엘라 이외에는 어디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까닭은 당시에 우리 나라와 베네주엘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며 나는 베네주엘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나 고마와하는 마음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 말고는 어디든지

마리오 지 에세베리



세월이 흘러서 나는 선교부장님과 처음으로 접견했습니다. 그는 질문하는 중에 “형제님은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시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예, 선교부장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앞으로 몸을 굽히고 내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만일 주님이 베네주엘라로 부르신다고 해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선교부장님이 내 생각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후에 나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으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우체부가 선교사 부름을 알리는 크고 흰 봉투를 가져다 주는 날이 왔습니다. 봉투를 열어 보았습니다. 베네주엘라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제발 그 나라에 가지 않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얼마 동안 말씀드린 후에 나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불을 켜고 교리와 성약을 펴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53면에서 멈추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보라……네 기도를 들었느니라. 너는……너의 부름……에 관하여 주께 하라. 나니 네게 알려 주실 것을 간구하였도다.

“너는 장로로서의 성임을 받들어, 나의 예에 따라 신앙과 회개와 죄 사유함과 안수로써 성신 받음을 전하라.”

“또 이후에……감독이 임명하는 곳에서 교회의 대리인이 되라.

“또 나는 네가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받는 줄 알기 원하노라.”(교성 53 : 1, 3—4, 7)

나는 그 책을 덮고 다시 무릎을 꿇었는데 이번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거역한 것을 용서해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베네주엘라에 갈 준비가 되었으며 이번에는 흰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매고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을 만났으며 그들을 위해 투쟁해야 했습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현재 그들 중 어떤 이는 신전에 가 있고, 또 어떤 이는 베네주엘라에 있는 우리 교회 지도자이며 또 어떤 이는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베네주엘라 사람으로부터 큰 사랑과 만족을 얻었으며 왜 내가 주님의 포도원 가운데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선교사에서 해임된 직후에 우리 어머니가 침례탕에 들어가시는 것을 목격한 일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주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기쁨을 압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이라는 것을 압니다. 회복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책임을 다하는 최선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어디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

오늘

데릭 에이 커스버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십대 소녀인 우리 딸 헤이즐은 자기 침실 벽에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적힌 포스터를 붙여 놓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나머지 인생의 첫 날이다.” 너무도 분명한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복음에 맞춰 검토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과거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다 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변화된 사람이 된다면 그가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과거가 신권 봉사, 자선 사업, 선교 사업 등과 같은 훌륭한 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오늘 우리가 참되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와 의도에 있어서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이 진실로 우리가 누구 편에 있는가 하

는 것을 결정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대와 말일의 예언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에스겔 33 : 12, 19) 좀더 최근에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런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 하느니라.”(교성 58 : 42)

오늘 회개와 변화와 개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생

각할 수 있고 주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훌륭한 권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22-24)

나는 1975년에 선교부장으로 부름받기 전에 바쁜 상공업계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영국에 있는 142헥타에 달하는 공업 지대로 가는 정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긴 화차에 가득 실은 석유와 큰 트럭에 가득 실은 섬유소 원료가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훌륭한 섬유류와 유용한 플라스틱을 실은 차량이 창고로, 점포로, 가정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같은 변화가 생겨서 원자재가 훌륭한 제품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귀중한 원자재를 받은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두뇌와 정신, 에너지와 재능 및 공간과 시간이 모두 우리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자비심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땅에 묻어 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개선해서 다섯 배 내지 열 배로 늘리도록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산품은 어떤 것이 될까요? 어쩌면 과거에 우리의 개인적인 변화 과정은 불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것을 좀더 충분히 효과적으로 만들고 시간과 정력을 좀더 적게 낭비하고 재능과 지능과 노력을 좀더 생산적으로 활용합시다.

나는 뉴욕주와 캐나다의 온타리오 경

계에 있는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때마다 매분 1억 3천 2백만 리터나 되는 물이 거의 60미터나 낮은 계곡으로 떨어지는 동안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막대한 잠재 에너지에 경탄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일단 개발하면 그 5백만 마력의 잠재력이 수많은 사람의 생활에 빛과 전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하고 계몽하며 발전하고 진보하며 재능을 개발하고 훌륭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슷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심과 변화와 더 나아지는 것과 극복과 다시 시작하는 것과 보폭을 넓히는 것과 어제보다 오늘을 더 낮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진보의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가운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진보하고 그리스도 같은 성품을 얻는 일에 있어서 좀 무감동하고 무기력한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특성을 얻으려는 개인적인 목표를 세울 때에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긴박한 느낌과 지금 행하는 느낌과 오늘을 강조하는 태도를 더해야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만일 오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는 구도자든지 오랫동안 교회 회원이었던지 젊든지 젊지 않든지 이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자문하게 됩니다. “나는 진실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하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것을 기대하시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있는 일은 어떤 것이 될까?" 우리 인생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라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 다가오느니라."(엘마서 34 : 32-33)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절약, 즉 우리의 천연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천연 자원인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일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날에 달성하고자 하는 일 열 가지를 적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엄수하고 신뢰받을 수 있게 되려는 노력과 병행하여 이것은 우리가 좀더 적은 시간을 허비하고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8년 전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으로서 연차 대회에 참석했을 때 나는 시간 엄수에 관하여 훌륭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나는 교회의 모든 부서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당시 교회의 부서들은 솔트레이크시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나는 또 무엇보다도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나는 단 몇 분 동안만이라도 예언자를 뵙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오후 1시 반에 다시 오라는 말씀을 듣고 이 귀한 특권을 얻게 된 것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날 오전에 다른 곳을 방문하면서 내 마음은 흥겹게 노래했으며 시간은 몹시 빨리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나는 시계를 보고 약속 시간

이 거의 다 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급히 달려 얼굴이 벌개진 채 숨을 헐떡이며 교회 본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1분만 늦게 왔으면 이 훌륭한 기회를 놓쳤을지 모릅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나중에 맥케이 대관장님을 뵙 수 있었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내귀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가끔 나는 내 고향인 영국의 노팅엄시에 있는 어떤 교회 시계탑을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그 정면에는 "주님을 찾을 시간"이라는 권고가 크게 가로 질러 써어 있습니다. 어린이는 그 시계를 보면서 시계 바늘이 절대로 취침 시간을 가리키지 않기 바랍니다. 젊은이는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또 재미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시간에 대해 별로 염려하지 않는데 그것은 시간이 충분하고 또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노인은 아직 하지 못한 일을 행할 시간이 남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모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인생의 황혼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첫날입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직 대낮 동안 힘써 일하라 인내로써 오늘의 의무 다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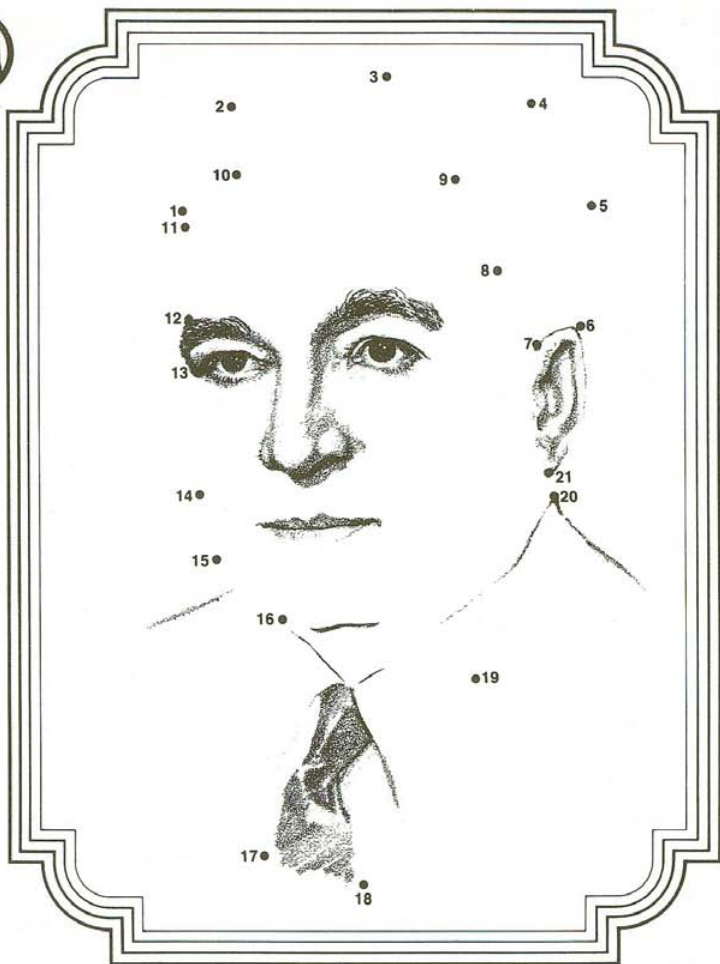
오늘 오늘 힘써 일하라.....

일을 할 수 있는 오늘

내일은 없나니 오늘뿐일세.

(찬송가, 102장)

*



해롤드 비리 1899—1973

해롤드 비리 대관장은 1899년 3월 28일에 아이다호주의 클리프톤에 있는 작은 농장에서 태어나셨다. 그는 17세에 교직을 맡기 시작했으며 18세에 작은 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졸업한 후에 유타주 솔트레이크군의 두 학교에서

교장으로 일하셨다.

그의 향학심은 독서하도록 격려해 준 어머니가 책을 손에 쥐게 해준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내가 맨 처음으로 소유한 책은 비극이 있는 다음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이는 누구나
내부에 하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모험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의 상상력으로 하여금 단조로운 시골 생활의 답답한 한계를 벗어나 마음껏 날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산맥에 둘러싸인 계곡 기슭에 사는 소년으로서 그런 외부 세계와 동물의 이야기는 특별히 나의 마음을 끌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리 대관장은 성령의 속삭임에 귀기울이라는 모친의 가르침도 그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회상했다.

“한번은 내가 우리 작은 집의 문간에 서서 가까운 산에서 큰 천둥이 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천둥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어머니가 힘껏 나를 떠밀어서 문간 밖으로 나가 떨어지게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줄기 벼락이 우리 집 부엌 난로의 굴뚝에 방전하여 문간을 통과하여 우리 집 앞에 있는 큰 나무를 순식간에 꼭대기부터 뿌리까지 깊이 잘라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내 생명을 구해 주신 그 순간적인 결정에 대하여 결코 말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은 어머니가 성령의 속삭임을 따랐던 수많은 순간의 하나였습니다.”

리 대관장은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이는 누구나 내부에 하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갖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 또는 진리의 빛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이 은사는 어린 아이라도 주님에게 속한 옳은 것과 세상에 속한 옳지 않은 것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옳고 주님에 속한 옳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

에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을의 성탄절 파티는 크리스마스 장식 트리의 촛불에서 산타클로스의 외투에 불이 붙어 그가 방 밖으로 뛰어나감으로써 갑자기 엉망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나는 아무 선물도 받지 못했으므로 쓸쓸하게 낙담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 잣더미에서 반쯤 불에 탄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인생에서 성공한 어린 소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성공한 사람의 인생에 관한 전기나 이야기는 읽을 때마다 재미가 있었으며

말미잘 주변의 어릿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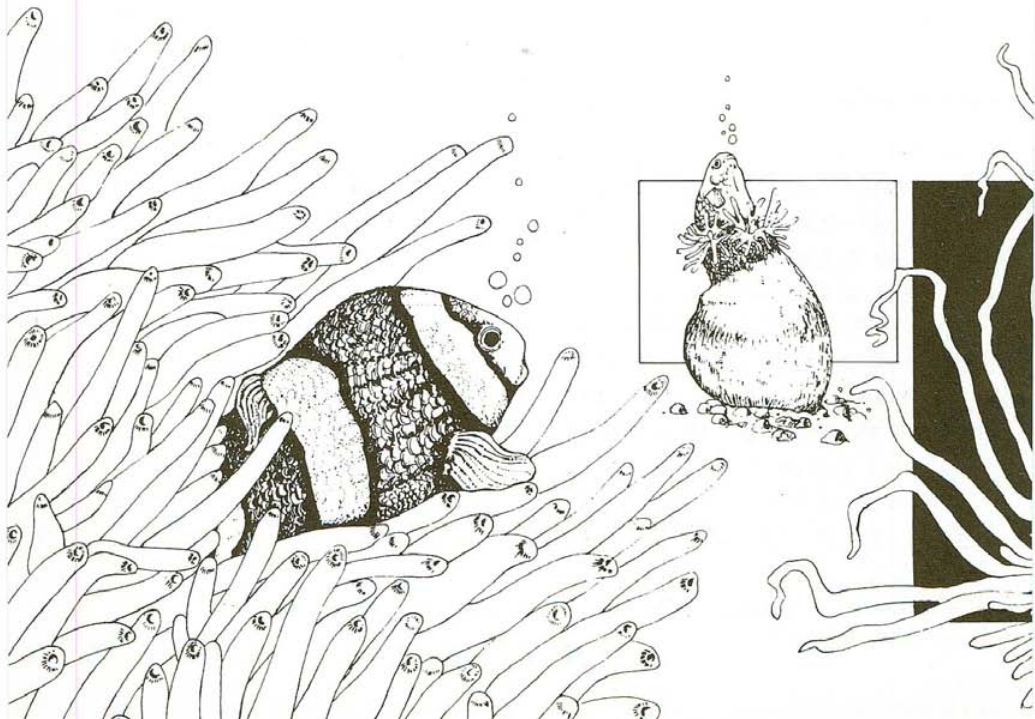
셔우드 비 잇소



인도양에서 온 어릿광대 물고기(열대어)가 캘리포니아만에서 온 말미잘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최근에 입수한 쌍뿔 모양의 양철 무늬가 있는 열대어가 지난 한 시간 동안 들어 있었던 플라스틱 상자에서 꿈틀거리며 나와서 우리의 어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품었던 의문입니다. 열대어 가게의 그 판매원은 이

두 생물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잘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이 일곱 개 달린 낙지와 열대 뱀장어를 함께 넣을 때도 그는 똑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두 종류의 생물이 만나는 것은 그때 만큼 극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줄무늬가 쳐진 어릿광대 물고기는 어항의 상단 구석까지 헤엄쳐 올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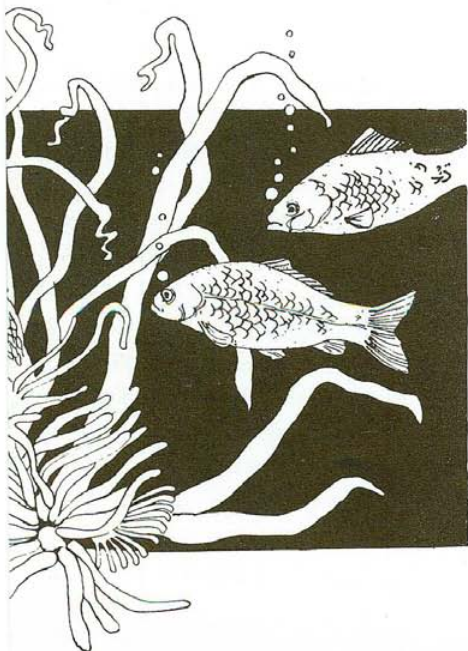
서 몇 분간 다른 고기와 낚을 익히더니 어항 상단을 가로질러서 3미터 가량 헤엄쳐 갔습니다. 이 길게 뻗은 모래와 산호 사이에는 우리가 멕시코의 푸에르토 페나스코 바로 남쪽에 있는 캘리포니아만에서 수집해 온 12종류의 말미잘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릿광대 물고기가 그 중에 어느 것을 택할까 하고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좀 작고 붉은 것일까? 또는 어항 한 가운데 있는 갈색과 자주색의 큰 놈일까? 또는 그 중에 여러 가지를 택할까?

첫날 우리는 하루 종일 그 어릿광대 물고기가 어떤 말미잘에게도 곧장 가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이 되자 어항의 중심부 근처에 있는 커다란 말미잘 근처에서 안식처를 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곧 자기 것이라고 선포한 말미잘의 수많은 촉수 사이에서 힘차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어릿광대 물고기와 말미잘의 친숙한 관계는 몇 년 동안 공생 관계 관찰자들 사이에서 논쟁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어릿광대 물고기가 말미잘의 촉수 사이에서 동지를 틀고 있으며 그 적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사실은 대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말미잘은 그 공생 관계에서 무엇을 얻을까요?

때로는 그 어릿광대 물고기가 말미잘에게 의도적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다른 물고기를 유혹하여 말미잘의 독있는 바늘이 달린 촉수에 잡히게 해준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릿광대 물고기가 큰 음식 덩어리를 공생하는 말미잘에게 가져 갈 때도 말미잘이 먹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그 의견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반대로 말미잘이 먹이를 잡는 즉시 먹이를 뜯어 내서는 떨어져 나간 작은 부분을 먹



때로는
그 어릿광대 물고기가
말미잘에게
의도적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다른 물고기를 유혹하여
말미잘의
독있는 바늘이 달린
촉수에 잡히게 해준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쌍빔 모양의
 양줄 무늬가 있는
 열대어
 어릿광대 물고기는
 캘리포니아만에서 온
 말미잘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하며
 그 관계가
 양자에게
 모두 유익하다는 것은
 아주 확실합니다.

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말미잘에게
 는 아무것도 남겨 주지 않았습니

어떤 의견이 옳을까요? 우리는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
 아 냈습니다.

우리의 첫번째 시도는 적합한 먹이
 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연못
 에 가서 즉시 민물의 피라미 종류를 충
 분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3마
 리를 어항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어항
 안의 고기뼈가 피라미 3마리를 점심 식
 사로 쪼개기 시작하자 물이 일렁거렸습
 니다. 그러자 그때 어디에서 나타났는
 지 줄무늬처럼 어릿광대 물고기가 그
 전쟁터로 쳐들어가더니 상하지 않은 피
 라미 한 마리를 입에 물고 재빨리 돌
 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릿광대 물
 고기의 재빠른 몸놀림은 강아지가 주인
 이 던진 지팡이를 물고 주인에게 돌아
 가서 즐겁게 꼬리를 흔드는 것을 연상

시켰습니다.

그 어릿광대 물고기는 갈색과 자주색
 의 큰 말미잘에게 도착하더니 그 피라
 미를 죽 뺏쳐 있는 말미잘의 촉수 안으
 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 촉
 수가 자극에 반응을 보이고 그 피라미
 를 잡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라미를
 안전하게 묶어 둔 것을 확인하고 어릿
 광대 고기는 어항 끝에 있는 싸움터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피
 라미를 나포해서 그 풍만한 말미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말미잘은 아직도 그
 두번째 배급으로 배가 불러 있는데다가
 어릿광대 물고기가 세번째로 마지막 남
 은 피라미를 갖고 오자 정말 배불리 먹
 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우
 리가 목격한 것이 반복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계속되었
 습니다. 그 어릿광대 물고기는 한번 더
 그 말미잘을 위하여 세 마리의 피라미
 를 확보해서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교활
 한 삼각 나비 열대어가 말미잘로부터
 그것을 훔쳐가자 즉시 도로 빼앗아 가
 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릿광대
 물고기는 한번도 그 피라미를 자기 것
 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

따라서 그 줄무늬가 있는 어릿광대
 물고기가 옮겨 놓은 말미잘에 관하여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
 은 확한실 것 같습니다. 쌍빔 모양의 양
 줄 무늬가 있는 열대어 어릿광대 물고
 기는 캘리포니아만에서 온 말미잘과 함
 계 있으면 정말 행복하며 그 관계가 양
 자에게 모두 유익하다는 것은 아주 확
 실합니다. 매일 세 번씩 음식을 가져다
 주는 친구에 관하여 여러분은 또 어떤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안헬 아브레아 장로



친구가 친구에게



나는 만 열 살 때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두 명의 자매 선교사가 우리 아버지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라고 아브레아 장로는 회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낙농 제품 관계의 사업을 하시며 마차도 대 여섯 대 갖고 계셨습니다. 나는 가끔 아버지가 배달하시는 것을 도와 드리곤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배운 노래 가운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나더러 세상 빛 되라’ (다 함께 노래를, B-67)

는 곡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그 노래를 너무 많이 들어서 싫증이 나셨습니다.

“어느 날 어떤 고객에게 우유 두 병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그 집의 부인이 내 노래를 듣고 나와서 ‘그게 무슨 노래냐?’고 물었습니다.

“나더러 세상 빛 되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노래라고?’”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교회인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다른 이름은 없니?”

“있어요. 물론 교회예요.”

“네 교회에 관해서 좀 이야기해 주겠니?”

아브레아 장로는 그때부터 2주일 후에 그 부인과 가족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선교 사업을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개종에 대하여는 어머니께 감사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말일성도 선교사가 어머니에게 물문경과 소책자 몇 권을 줬서 우리 모두가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물문경을 읽곤 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많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읽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이며 현재까지 25년 이상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 동생도 매우 활동적이며 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레아 장로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초등학교 및 주일학교 교사에 관하여 말씀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침례받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매우 활동적인 젊은 자매가 8명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교회내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명은 우리를 가르친 선교사였으며 두 명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나머지 사람은 주일학교에서 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러 가지 면으

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는 아직도 말씀을 할 때 그들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레아 장로는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가 아주 많이 응답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응답된 것은 열 한 살 때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가지 곡물도 파셨는데 그것은 가족에게 먹이기 위하여 으깨야 했습니다. 어느날 부친은 약속 때문에 그 곡식을 으깨는 일을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그 기계를 맡기고 가시도록 말씀드리고 내가 대신해서 그 일을 끝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너무 어려서 그 일을 할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믿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시험삼아 맡기시기로 했습니다. 그 일은 너댓 시간이 걸렸으며 나는 그 기계에 곡식을 밀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다가 갑자기 기계가 영켰습니다. 나는 그 기계의 부속 하나를 떼어 내서 다시 조립하면 기계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부속을 떼어 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계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교회 회원이 된 지 6개월 되었는데 초등학교에서 배운 교훈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

고 나서 기계로 가서 다시 해보니까 부족이 맞추어져서 다시 기계가 작동했습니다.

“그 다음 간증회 때 처음으로 공중 앞에서 간증을 드렸습니다. 나는 기도에 관한 경험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앉았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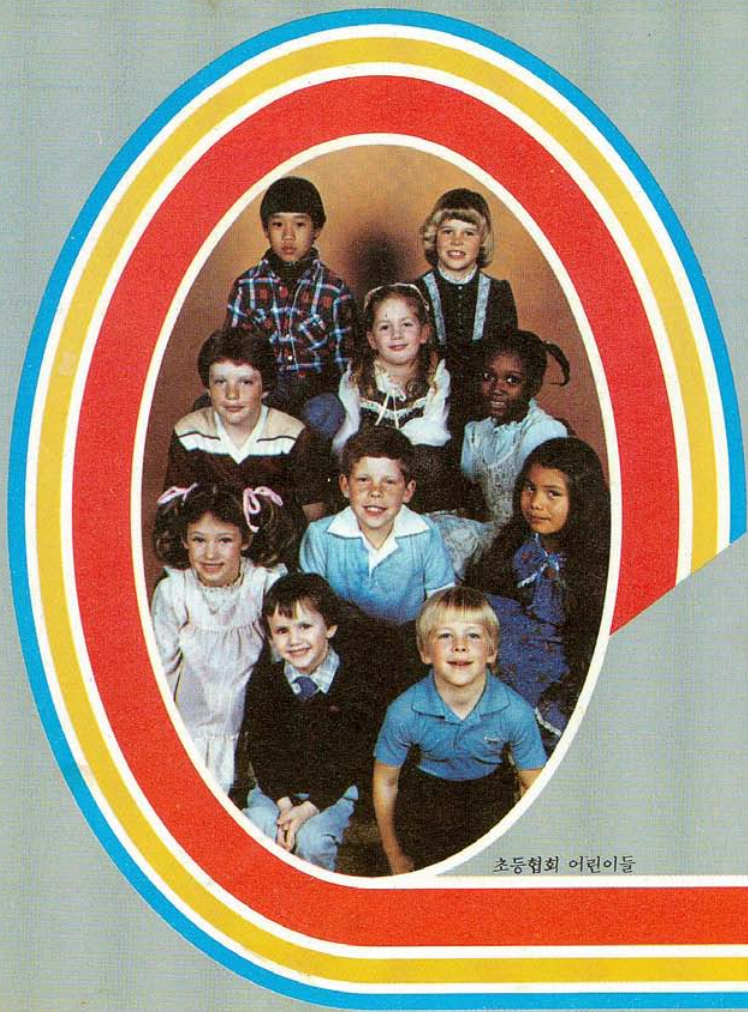
“나는 교회의 회원이 된 이래로 아르헨티나에서 수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내가 지부장으로 있을 때 거기에 첫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 예배당이 완성되자 휴 비 브라운 부대관장님이 헌납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르헨티나에 25개의 스테이크가 있고 8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



그 지역에서 1만 2천 명의 새 회원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곧 아르헨티나에 신전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꿈 같은 일입니다.

“교회의 젊은이에게 그들은 장래의 지도자이며 선교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을 즐겁게 보내십시오. 그러나 또한 장래에 대한 준비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매우 중요한 아들 딸입니다.” *

와 남미 전체를 열며 주셨습니다. 내가 선교부장으로 일하는 3년 동안 우리는



초등학교 어린이들